韓國學校保健學會誌 第11卷 第2號
J. of Korean Soc. of School Health
Vol. 11, No. 2, September, 1998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 대책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아가야 할 중차대한 역할을 담지하고 있다. 이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해야 이 사회의 미래가 밝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신체적 성숙과 함께 사회적 지위의 변화와 자아 정체감을 위한 자아 탐색이 이루어지는 역동적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은 매우 바쁘고 고단하며 혼돈되어 있다.

청소년들은 산업의 급진적인 발달과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으나 사회가 고도로 정보화, 전문화됨에 따라 모든 부문에 전문적 정보를 갖기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대중사회에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자기 개성을 잃고 가치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어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깊은 소외감과 단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자아 정체감의 혼란과 자아 존중감의 결여로 인한 심리적 우울이나 불안감을 덜고 들뜬기분(euphoric)을 느끼며 갈등으로부터 쉽게 도피할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려고 약물에 접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약물 남용이 급속도로 증가되었고 약물 남용자의 수적 증가, 약물 남용 종류의 다양화, 지역적 확산 및 사용 계층의 대중화가 이루어져 왔다.

청소년 약물 남용 행위는 남용하는 개인에게 경우에 따라 정신적 · 육체적으로 치명적 해독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약물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경우 강력 사건의 20퍼센트 가량이 약물 사용과 관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청소년 약물 남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작금의 약물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하여 그들이 이 사회의 주역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데 조력을 주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 목적

약물의 남용을 예방하고, 남용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을 탐색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물 남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둘째, 약물 남용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구안 · 적용한다.

3. 연구의 제한점

연구의 추진 대상은 인천광역시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1, 2, 3학년 전교생과 산업체 특별학급 1, 2, 3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4 용어의 정의

가. 약물

"행동이나 정신 상태를 바꾸는 모든 화합물 또는 향정신성 약물"을 포함한다.(R. A. Smith, 1975). 이때 약물이라 불리는 일단의 물질들이 갖는 공통적 특성은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사용하거나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약물에 대한 심리적 또는 신체적 의존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물질들을 모두 약물의 범주에 넣을 때 술과 담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에컨대, 본드, 신나, 가스 등)이 약물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박중규, 1988).

본 연구에서도 약물의 개념을 "향정신성 약물과 의학적 목적 이외의 용도를 가지고 쓰이는 화학 물질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사용하고자 한다.

나. 약물 남용

세계 보건 기구(WHO, 1974)의 정의에 의하면 "의

료 행위의 규정에 맞지 않게 약물을 지속적으로 혹은 산발적으로 과용하는 것"이라 하였고, 미국 정신 의학회 DSM-III(1980)의 정의에 의하면 "(1) 적어도 한 달 정도 약물을 사용하고, (2) 약물 사용으로 인한 사회 및 직업 기능에 손상을 일으키며, (3) 병적인 사용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의 비의학적 사용으로 약물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학적 목적과는 관계없이 감정, 인식, 행동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약물 남용의 원인

청소년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가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한 만큼 그들의 약물 남용 원인도 매우 복잡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같이 다양한 변인들이 제시되는 바, 이 글에서는 크게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그리고 유전적 요인으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하겠다.

가. 심리적 요인

Ausubel에 의하면 청소년의 약물 추구 행위는 청소년 비행과 마찬가지로 발달 단계상 겪는 전이적 이상(transitional aberration)을 취한다[1]고 한다. 또 청소년기는 그 발달 시기상 자아 정체감이라는 발달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행 착오를 겪는 시기이다.[2]

이 시기의 심리적 특징은 자아 정체감을 확고하게 가지지 못할 때 긴장이 심해지고 불안에 직면하게 되며 개인에 따라서 심한 방어 기제를 통해서 합리화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적 증대를 형성함으로써 문제와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정체감의 혼미 상태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자기 치료의 수단으로 약물에 의존하게 된다.

이 시기가 교육학적 측면에서 학업에 종사하는 시기이므로 성적 불량 등 학교에서의 부적응 현상이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므로 이로 인한 학교 생활에의 흥미 저하와 다른 흥미 추구로 인한 불량 교우 관계는 약물 남용으로 발전할 소지가 많다. 이처럼 대체로 낮은 자아 개념의 소유자가 약물에 의존하게 된다.

또 청소년의 자아 특성 중의 하나는 불안감과 죄책감이다[3]. 약물 사용하게 되면 부정적인 태도와 연관된 부담감을 덜 수 있으므로 환경이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게 하여 현실을 왜곡하여 들뜬기분(euphoric)을 만들게 되고 Id의 무의식적이고 충동적인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적응적 자아를 위협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피적 적응을 위하여 약물을 사용한다.

나. 사회적 요인

청소년들이 실제로 약물을 남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타자들과의 약물에 대한 상호작용이라는 외적인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정, 학교, 또래(동료)집단(peer group)에서의 약물 사용이나 허용이 영향을 미치며 이 중에서도 또래 집단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이들은 또래 집단에서의 배척을 두려워하며 사회적으로 볼 때 무가치하고 금지된 것일지라도 집단적일 경우 무리해가면서까지도 하게 되는데 결국 또래 관계에 수용되기 위하여 약물을 남용하게 된다.

다. 유전적 요인(predispositon)

생물학적으로 약물 남용은 유전, 혈당 수준과 상관관계에 있다(NADA, 1981). 사회적 행동과 유전적 요인의 관계에서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범죄율상에서 비교한 연구 결과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가 일치율이 더 높았다고 한다(Lange, 1929). 이런 결과는 유전적 요인들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 약물 남용 학생의 특징

가. 청소년기의 일반적 특징

청소년기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 7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김형태, 1990).

(1) 청소년기에 들어가면서 급격한 성장을 거쳐 신체적으로는 성인의 수준에 달하고 생리적 기능이 완성되어 에너지가 왕성해진다. (2) 청소년의 생활과 행동에는 성적 성숙이 기초가 되어 점차적으로 불안정성은 사라지고 세련되어지며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이성에의 적응이 시작된다. (3) 성격 구조에 있어서 Id와 Ego가 강하게 표출되어 Id로 인한 청소년 특유의 공격성, 야생성, 범죄 충동성을 지니거나 Ego로 인한 불안, 금욕주의 및 기성화의 경향을 보인다. (4) 자아의식이 발달해 행동의 기초를 구성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척도를 갖는다. 주관적으로 이상, 친구, 기호, 취미를 선택하고 사고는 추상적, 관념적, 비판적, 합리

적으로 되며 때로는 급진적 또는 개혁적인 성향을 갖기도 한다. (5) 자아 감정이 높아지며 자존심, 자기 주장 및 독립심이 강해진다. 권위에 반항하고, 고독을 즐기며 갈등과 고민을 하고 결정적이면서도 자기 감정에 도취되기를 잘한다. (6) 개성이 선명해지고 생활설계를 작성하여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기 관리를 한다. (7) 자아 의식과 개성의 신장은 부적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나.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 유형

이러한 특징을 지닌 청소년들이 약물을 남용하는 유형을 보건 사회부는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평화 추구형(peace-seeking type)이 있다.

고통을 받은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격정적 감정을 바르게 진정시키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신경 안정제, 수면제, 환각제 등을 사용하는 유형을 말한다.

둘째, 모험 추구형(advanture-seeking type)이 있다.

청소년들은 흥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모험을 추구하는 탐구적 욕구가 조절되고 폐쇄될 때 흔히 본드 등을 흡입하여 내적 욕망을 채우려는 유형이다.

셋째, 힘 추구형(power-seeking type)이 있다.

자신의 힘을 갖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은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히로뽕이나 코카인 등을 사용하는 유형을 말한다.

넷째, 교우 관계 유지형(friendship-seeking type)이 있다.

친구를 사귀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마초, 흡연, 음주 등의 약물을 남용하게 되는 유형을 말한다.

다섯째, 미적 추구형(beauty-seeking type)이 있다.

미적 추구를 위해 LSD나 메스칼린과 같은 환각제를 사용하는 유형이다.

여섯째, 성적 추구형(sex companion-seeking type)이 있다.

청소년들이 이성에게 향하는 성적 충동을 약물 복용으로 해소하려는 유형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초월 환상 추구형(transcendence-seeking type)이 있다.

약물 복용으로 신비적이고 신성한 세계를 추구하여 억압되고 괴로운 현실을 도피해 보고자 약물을 복용하는 유형을 말한다.

다. 약물 남용 학생의 특징

다음으로 약물을 남용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가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학생들이다. 가정적인 문제점은 부모들의 자녀 양육방법이 극단적인 보호 · 거부(protection-rejection)의 양상을 보이거나 또는 결손 가정, 가난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약물 남용에 빠질 확률이 높다.

둘째, 약물을 남용하는 학생은 잘못된 학교 체제 때문에 생겨난다. 포크와 세이퍼(K. Polk & W. Schafer)는 많은 학교의 운영 정책과 방법 등이 실제로 청소년들의 비행 행동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또 지속시킨다[6]고 언급하였다. 학교 체제의 구성적 이데올로기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학생 문제, 부적절한 교과 재료 및 교재 이용, 부적당한 교육 방법 지능 검사나 능력별 학급 편성 등의 요소들이다.

셋째, 또래 집단(peer group)[7]의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아 호기심 내지는 교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약물을 남용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넷째, 사회 변화[8] 때문에 약물을 남용하게 된 학생도 있다. 어른이 되고 싶은 충동에서 쉽게 술, 담배를 접한다든지, 부모들이 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면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습관을 배워 약물을 남용하게 된다.

다섯째, 약물 남용 학생들의 연령, 성별, 사회 계급, 지적 수준상의 특징[9]을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약물을 남용하는 연령층은 사춘기로서 점차 그 연령층이 하락 추세에 있으며, 성별 비율은 대략 남녀가 3-4대 1로 추정되는데 이 비율은 청소년의 경우 덜 뚜렷하고 특히 흡연은 남녀의 구별이 점차 감소되며, 남자는 음주를, 여자는 약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흔히 사회 계층이나 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에 약물 남용이 많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청소년의 경우 계층간의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용되는 약물의 형태는 다를 수 있는데, 주로 구입의 용이함, 가격 등이 영향을 미친다. 지적 수준에 있어서 지능은 대개 정상 또는 정상 이상이 대부분이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중도 탈락한 경우가 많다.

3. 약물 남용의 문제점

청소년의 약물 남용에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약물 남용을 시작하면 약한 약물에서 더 강한 약물로 빠르게 중독 현상이 심화되며, 한 가지 약물로 시작을 하지만 일단 약물 남용이 생기면 쉽게 여러 가지 약물을 복합적으로 남용하게 되고, 청소년기에 약물을 시작한 사람의 대부분이 성인이 되어서 폐인이 된다[10]는 점이다.

약물 남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인 문제이다. 청소년기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급성장을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약물 남용이 미치는 해독은 그 시작 단계에서는 대단치 않은 것처럼 보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의 후유증은 심각한 것이다. 약물이 청소년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1차적으로 약물 자체의 해독으로 인한 신경 및 신체 조직상의 손상 이외에도, 2차적으로 오는 신체 발육 지연 및 신체 기능의 부조화 등도 매우 심각하다.[11]

둘째, 정신적인 문제이다. 약물을 남용하는 청소년은 약물을 남용하기 이전에 이미 정서적 문제가 있고, 약물에 탐닉하게 되는 것을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의 자기 파괴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신경 세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기에 약물을 남용하게 되면 대부분 영구적인 신경 세포의 손상 및 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종국에 가서는 인격의 황폐화에 이르게 된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의 문제이다. 사회학적인 문제로는 약물에 취하여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비행기, 선박, 전동차 등의 추돌, 충돌, 추락 사고 등과 자살, 인질, 살인 등 전혀 예측 불허한 각종 폭력 사고를 유발한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핵물질이나 핵폭탄, 핵미사일을 다루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제한을 두고 있다. 아울러 약물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절도, 강도 마약 거래, 살인 행위 등을 자행하게 되며 여자의 경우는 매음도 하게 된다. 외국의 조사에 의하면 약물에 중독된 여성의 90% 정도가 매음을 한다고 한다. 결국 약물 남용자는 인격의 파탄과 황폐화 현상을 초래한다. 그리고 중독자 치료 성공률이 20%인데다가 재범률이 50~80%에 이르고 있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12].

우리 나라도 2000년대 전국민의 1%가 약물을 남용한다고 가정하면 그 숫자는 50만명 이상에 이를 것이고, 국민 1인당 총생산량(GNP)을 15,000불로 계산할 때 경제적 손실은 년간 75억불 내지 85억불에 이를 것이다. 실로 엄청난 손실이다. 이 계산은 이들의 치료비 및 재활, 재교육비는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13] 결국 약물 남용은 국가를 경제적으로 황폐화시킬 수도 있다.

넷째, 생활 태도 변화면에서의 문제이다. 약물 남용에 빠질 때 파생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활 태도의 변화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이 약물의 구입과 사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약을 일단 사용하게 되면 정상 생활을 해낼 수가 없다.

약기운이 빠져 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인간 관계에서이 실수를 유발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핑계, 거짓, 허세, 자기 합리화, 원망 등이 늘어나게 되어 궁극적으로 더욱 비참함을 맛보게 되며, 친구들과 멀어짐에 따라 외로움 등의 감정을 다시 약으로 해결하려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약값 조달을 위하여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꾸거나 물건을 내다 팔거나 사기, 절도, 폭력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협박까지도 하게 된다.

다섯째, 의학적인 문제이다. 이들 약물을 계속 사용하는 가운데 각자의 약물이 가지고 있는 독성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아울러 과량 사용에 의한 사망, 불결한 주사 바늘에 의한 합병증 -간염, 피부염, 심장판막염, 폐농양, 뇌혈관염, 정맥염 등-과 에이즈 감염을 일으킨다. 에이즈 환자의 30~90%가 약물 남용자라는 것은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에게는 태아 약물 증후군을 일으켜 정신 박약아나 신체 기형아 등을 낳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약물 남용이 〔될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식 인생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14]

III. 연구 방법

1.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1, 2, 3학년 재학생(1997년 42학급 2,221명), (1998년 42학급 1,852명)이었으며, 연구기간은 3월~1998년 9월 이었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약물 남용 실태 파악

가. 실태 분석

약물 남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태도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나. 약물 반응 검사

교육부의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 대책"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 81480-1023(97. 8. 27)호에 의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 약물 반응 검사를 실시하였다.

2) 약물 남용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구안 · 적용

가. 지도 자료

(1) 예방 지도 자료

(가) 예방 지도 자료 발간 :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 지도 자료를 발간하였다. 그 제목은 다음과 같다(표 1).

(나) 예방 지도 자료의 적용 : 매주 금요일 학급회 시간에 담임 교사가 지도하도록 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중 조 · 종례 시간에 지도 자료로 활용하게 하였다.

(2) 관련 교과 교수-학습 자료

체육과, 교련과, 가정과, 과학과 교수-학습과정안을 마련하였다.

3. 실태 분석

가. 다음 중 경험한 바 있는 것은?

97, 98을 비교해 보면 본교 2학년은 증가율이 높은 순위가 음주 · 흡연(6.7%), 음주(6.3%), 약물 복용(1.6%) 순이며, 본교 3학년의 경우는 음주(4.6%), 음주 · 흡연(2.1%), 흡연(0.1%) 순이다. 음주와 흡연이 동시에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환각제를 제외한 나머지가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타교 2학년은 음주(3.1%), 음주 · 흡연(2.2%) 순이며, 타교 3학년의 경우는 음주(15.6%), 흡연(0.2%) 순이다. 음주가 3학년에서 비교적 높은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 유의하여 계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 음주에 대한 조사

(1) 음주를 하였다면 처음 술을 마신 시기는?

표 1. 예방 지도 자료 제목

번호	구 분	제 목
1	약물일반	보이지 않는 죽음
2	약물일반	복어 이야기
3	약물일반	주객 전도
4	약물일반	힘들어도 약물은 안돼
5	약물일반	연꽃의 의미
6	약물일반	나무야, 멋진 나무야
7	약물일반	학생은 조국의 모습
8	약물일반	수단적 성격의 음주, 흡연
9	약물일반	씨 부리는 봄과 알콜
10	음주	술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
11	음주	술+약=?
12	음주	음주권유, 이렇게 거절하자
13	음주	여성을 먼저 쓰러뜨리는 술
14	음주	음주와 건강
15	음주	술에 대한 여섯 가지 상식
16	흡연	금연의 10가지 혜택
17	흡연	금연은 일거 양득이다
18	흡연	담배 끊는 법
19	흡연	금연의 10가지 이유
20	흡연	흡연에 대하여
21	흡연	담배는 몸에 해로워
22	흡연	담배에 대한 오해
23	흡연	담배는 과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가?
24	흡연	금연! 성공의 필수 조건
25	흡연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26	흡연	어떤 말로 금연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인가?
27	흡연	모성을 위협하는 담배
28	흡연	흡연의 해로움
29	흡연	담배의 성분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30	약물	마약 없는 밝은 사회를 위하여
31	약물	미를 위한 약물 오용
32	약물	정상적이고 생산적인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자
33	약물	죽음의 벗, 약물 남용
34	약물	삶을 파괴하는 약물 중독
35	약물	우리의 2세, 이래도 되는가?
36	약물	한 번 더 생각을
37	약물	약물 복용과 기형학
38	약물	죽음에 이르는 본드
39	약물	성적을 떨어뜨리는 흡입제
40	약물	기침약이 환각제?
41	약물	암페타민: 각성제 필로폰 남용
42	약물	약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
43	약물	약물의 종류 및 특징
44	약물	청소년 약물 남용의 이유, 동기 및 문제점
45	흡연	금연 교육 때 유의해야 할 점
46	약물	약물의 종류 및 부작용
47	약물	습관 중독성 물질이 정신 및 신체에 미치는 영향

표 2. 각종 약물 사용 경험

학년 \ 내용		음주	흡연	약물복용	환각제(본드)	음주, 흡연	기타	무응답	계
2	97	436 (55.6)	12 (1.5)	13 (1.7)	1 (0.1)	32 (4.1)	7 (0.9)	264 (36.1)	765
	98	360 (61.9)	12 (2.1)	19 (3.3)	1 (0.2)	63 (10.8)	17 (2.8)	110 (18.9)	582
	증감	6.3	0.6	1.6	0.1	6.7	1.9	-17.2	
타교 여학생 2	97	487 (51.0)	20 (2.1)	19 (2.0)		155 (16.2)	49 (5.1)	224 (23.5)	954
	98	212 (54.1)	5 (1.3)	7 (1.8)		72 (18.4)	23 (5.9)	73 (18.6)	392
	증감	3.1	-0.8	-0.2		2.2	0.8	-4.9	
3	97	437 (61.5)	18 (2.5)	15 (2.1)	1 (0.1)	71 (10.0)	22 (3.1)	147 (20.7)	711
	98	405 (66.1)	16 (2.6)	12 (2.0)		74 (12.1)	23 (3.7)	83 (13.5)	613
	증감	4.6	0.1	-0.1	-0.1	2.1	0.6	-7.2	
타교 여학생 3	97	616 (56.0)	17 (1.5)	21 (1.9)		149 (13.5)	60 (5.5)	237 (21.5)	1100
	98	292 (71.6)	7 (1.7)	5 (1.2)		35 (8.6)	16 (3.9)	53 (13.0)	408
	증감	15.6	0.2	-0.7		-4.9	-1.6	-8.5	

표 3. 처음 술을 마신 시기

학년 \ 내용		초등학교때	중학교때	고1때	고2때	고3때	기 타	무응답	계
2	97	48 (6.3)	425 (55.6)	14 (1.8)				278 (36.3)	765
	98	46 (7.9)	323 (55.5)	84 (14.4)	18 (3.1)		2 (0.4)	109 (18.7)	582
	증감	1.6	-0.1	12.6	3.1		0.4	-17.6	
타교 여학생 2	97	89 (9.3)	578 (60.6)	76 (8.0)	2 (0.2)		3 (0.3)	206 (21.6)	954
	98	35 (8.9)	198 (50.5)	62 (15.8)	29 (7.3)		3 (0.8)	65 (16.6)	392
	증감	-0.4	-10.1	7.8	7.1		0.5	-5.0	
3	97	48 (6.8)	322 (45.3)	198 (27.8)	32 (2.1)		1 (0.1)	110 (17.9)	711
	98	24 (3.9)	240 (39.2)	176 (28.7)	83 (13.5)	20 (3.3)		70 (11.4)	613
	증감	-2.9	-6.1	0.9	11.4	3.3	0.1	-6.5	
타교 여학생 3	97	80 (7.3)	496 (45.1)	218 (19.8)	78 (7.1)		3 (0.3)	225 (20.5)	1100
	98	25 (6.1)	161 (39.5)	82 (20.1)	59 (14.5)	35 (8.6)	1 (0.2)	45 (11.)	408
	증감	-1.2	-5.6	0.3	7.4	8.6	-0.1	-9.5	

97, 98을 비교해 보면 본교 2학년은 고1 때의 증가율이 12.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고, 3학년은 고2 때가 11.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현상은 이미 중학교 때 40% 이상이 음주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타교 2학년은 고1 때 7.8%, 고2 때 7.1%로 비슷한 증가를 보이고 있고, 3학년은 고3 때가 8.6%, 고2 때가 7.4%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도 주목할 현상은 이미 중학교 때 40% 이상이 음주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다. 흡연에 대한 조사

(1) 흡연을 하였다면 언제 처음 담배를 피웠는가?

97, 98을 비교해 보면 본교 2학년은 고1 때가 5.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3학년은 고2 때가 6.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전 학년도에 피운 비율이 증가 한다는 것은 새로운 흡연자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타교 2학년 중학교 때가 3.0%로 가장 높은 증가율

표 4. 처음 흡연을 한 시기

학년 \ 내용		초등학교때	중학교때	고1때	고2때	고3때	기 타	무응답	계
2	97	18 (2.4)	39 (5.1)	7 (0.9)				701 (91.6)	765
	98	23 (4.0)	54 (9.3)	38 (6.5)	6 (1.0)			461 (79.2)	582
	증감	1.6	4.2	5.6	1.0			-12.4	
타교 여학생 2	97	36 (3.8)	156 (16.4)	32 (3.4)			4 (0.4)	726 (76.1)	954
	98	10 (2.6)	76 (19.4)	7 (1.8)	5 (1.3)		2 (0.5)	292 (74.5)	392
	증감	-1.2	3.0	-1.6	1.3		0.1	-1.6	
3	97	22 (3.1)	86 (12.1)	30 (4.2)	2 (0.3)			571 (80.3)	71
	98	12 (2.0)	54 (8.8)	34 (5.5)	39 (6.4)	8 (1.3)	1 (0.2)	465 (75.9)	613
	증감	-1.1	-3.3	1.3	6.1	1.3	0.2	-4.4	
타교 여학생 3	97	16 (1.5)	136 (12.4)	44 (4.0)	13 (1.2)		3 (0.3)	888 (80.7)	1100
	98	6 (1.5)	28 (6.9)	20 (4.9)	11 (2.7)	1 (0.2)		342 (83.8)	408
	증감	0	-5.5	0.9	1.5	0.2	-0.3	3.1	

표 5. 사용한 약물의 종류

학년 \ 내용		진통소염제	정신, 신경안정제	피로회복제	각성제	습관성 마약류	진통, 소염 피로회복제	기 타	무응답	계
2	97	227 (29.7)	4 (0.5)	39 (5.1)	5 (0.7)		32 (4.2)		458 (59.9)	765
	98	206 (35.4)	2 (0.3)	58 (10.0)	4 (0.7)		39 (6.7)		273 (46.9)	582
	증감	5.7	-0.2	4.9	0		2.5		-13.0	
타교 여학생 2	97	304 (31.9)	7 (0.7)	58 (6.1)	3 (0.3)	3 (0.3)	64 (6.7)	18 (1.9)	497 (52.1)	954
	98	141 (36.0)	1 (0.3)	37 (9.4)	1 (0.3)		18 (4.6)	7 (1.8)	187 (47.7)	392
	증감	4.1	-0.4	3.3	0	-0.3	-2.1	-0.1	-4.4	
3	97	268 (37.7)	3 (0.4)	79 (11.1)	11 (1.5)		47 (6.6)		303 (42.6)	711
	98	251 (40.9)	5 (0.8)	68 (11.1)	2 (0.3)		41 (6.8)		246 (40.1)	613
	증감	3.2	0.4	0	-1.2		0.2		-2.5	
타교 여학생 3	97	317 (28.8)	6 (0.5)	46 (4.2)	10 (0.9)		61 (5.5)	10 (0.9)	650 (59.1)	1100
	98	118 (28.9)	2 (0.5)	34 (8.3)	5 (1.2)	1 (0.5)	20 (4.9)	8 (2.0)	220 (53.9)	408
	증감	0.1	0	4.1	0.3	0.5	-0.6	1.1	-5.2	

을 보이고 있고, 3학년은 고2 때가 1.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주목해야 할 점은 새로운 흡연자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라. 약물을 복용하였다면 주로 어떤 약물을 복용하였는가?

97, 98을 비교해 보면 본교 2학년은 진통 · 소염제 복용이 5.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3학년도 진통 · 소염제 복용이 3.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각성제, 정신 · 신경 안정제의 복용이 줄거나 낮은 증가율을 보였고, 습관성 마약류의 복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타교 2학년은 진통 · 소염제 복용이 4.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3학년은 피로회복제 복용이 4.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각성제, 정신 · 신경안정제의 복용이 줄거나 낮은 증가율을 보여 바람직하나, 3학년에 1명이지만 습관성 마약류의 복용자가 있다는 점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

표 6. 약물 남용을 안하게 된 계기

학년	구분	교과시간	담임교사	다집대회	게시물	표어, 포스터, 글쓰기 대회	무응답	계
본교	인원	791	260	182	345	151	397	2126
	비율	37.2	12.2	8.6	16.2	7.1	18.7	100
타교	인원	417	134	74	285	119	129	1158
	비율	36.1	11.6	6.4	24.6	10.3	11.1	100
차이		1.1	0.60	2.2	-8.4	-3.2	7.6	

4. 인지도 조사

가. 약물 남용 예방 교육에 대한 태도

(1) 약물 남용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장 깊게 하게 된 계기는 ?

본교생이나 타교생 모두 약물 남용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교과 시간이 가장 많았으며(본교: 37.2%, 타교: 36.1%), 그 다음으로는 게시물이나 담임 교사에 의해서 약물 남용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접했습니까?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접한 횟수는 본교생은 1회 이상이 81.7%, 타교생은 38.3%로 본교생이 타교생에 비해서 43.4% 약물 오 · 남용에 대한 예방 교육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약물 남용 예방 교육 횟수

학년	구분	1회	2-3회	3-4회	5회이상		무응답	계
본교	인원	1288	384	47	16		391	2126
	비율	60.6	18.1	2.2	0.8		18.3	100
타교	인원	300	115	18	11		714	1158
	비율	25.9	9.9	1.6	0.9		61.7	100
차이		34.7	8.2	0.6	-0.1		-43.4	

나. 술에 대한 태도

(1) 술은 건강에 해롭고 몸에 좋지 않다.

본교생은 67.1%, 타교생은 60.5%가 술은 건강에 해롭고 몸에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본교생이 타교생에 비해서 6.6% 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표 8. 술은 건강에 해롭다

학년	구분	확실히 그렇다	어느정도 그런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무응답	계
본교	인원	562	866	533	126	33	6	2126
	비율	26.4	40.7	25.1	5.9	1.6	0.3	100
타교	인원	259	441	329	93	35	1	1158
	비율	22.4	38.1	28.4	8.0	3.0	0.1	100
차이		4.0	2.6	-3.3	-2.1	-1.4	0.2	

표 9.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몸에 좋지 않다

학년	구분	확실히 그렇다	어느정도 그런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무응답	계
본교	인원	1,591	305	115	50	53	12	2,126
	비율	74.8	14.3	5.4	2.4	2.5	0.6	100
타교	인원	785	178	88	50	50	7	1158
	비율	67.8	15.4	7.6	4.3	4.3	0.6	100
차이		7.0	-1.1	-2.2	-1.9	-1.8	0.0	

표 10. 약물은 건강에 해롭고 몸에 좋지 않다

학년	구분	확실히 그렇다	어느정도 그런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무응답	계
본교	인원	1,039	558	297	112	104	16	2,126
	비율	48.9	26.2	14.0	5.3	4.9	0.8	100
타교	인원	633	245	142	67	63	8	1158
	비율	54.7	21.2	12.3	5.8	5.4	0.6	100
차이		-5.8	5.0	1.7	-0.5	-0.5	0.2	

나타났다.

다. 담배에 대한 태도

(1)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몸에 좋지 않다.

본교생은 89.1%, 타교생은 83.2%가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몸에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본교생이 타교생에 비해서 5.9% 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약물에 대한 태도

(1) 약물은 건강에 해롭고 몸에 좋지 않다.

본교생은 75.1%, 타교생은 75.9%가 약물은 건강에 해롭고 몸에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타교생이 본교생에 비해서 0.8% 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연구의 결과 및 논의

1. 실태분석

가. 각종 약물 사용 경험에 대한 분석

음주를 경험한 경우가 본교와 타 여고가 함께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은 본교가 타 여고에 비해 3.2% 더 증가, 3학년은 본교에 비해 타 여고가 11.0% 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3학년의 경우는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경험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은 본교가 타 여고보다 4.5% 더 증가, 3학년도 본교가 타 여고보다 7.0%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예방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경험 비율에서는 본교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본드에 대해서는 본교 2학년에서 1명이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그밖에 흡연과 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3.0% 미만의 낮은 응답율을 보였다(표 2).

나. 음주에 대한 분석

처음 술을 마신 시기는 본교와 타 여고 모두 중학교 때, 고1 때, 고2 때, 초등하교 순으로, 함께 마신 사람은 친구, 가족 · 친지, 선배 순이었으며 혼자, 동아리 친구가 그 다음 순으로 조사되었다. 마신 장소는 집, 수학 여행 중, 노점 · 포장 마차, 공원, 동아리 등의 순으로, 동기는 호기심, 친구권유, 스트레스 때문, 선배 권유, 불만 · 반항심의 순으로 조사되어 초등 하교 및 중학교 때부터의 조기 예방 교육과 건전한 교우 관계 지도 맞벌이로 인한 빈집 등 가정에서의 대응, 술에 대한 잘못된 호기심 억제를 위한 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최근의 음주 경험에 대해서는 43%~60% 정도가 전혀 안 마신다고 응답하였으며, 한달에 1~2회 내지 거의 매일 마신다가 6.2%~38.5%로 응답하였으며, 본교는 2학년이 타 여고보다 9.5% 더 증가하여쓰며, 3학년은 타 여고가 본교보다 7.0% 더 증가하여, 3학년에 대한 예방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음주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지속적이고 철저한 예방 교육이 절실하다 하겠다.

다. 흡연에 대한 분석

처음 흡연을 한 시기는 본교와 타 여고 모두 중학교 때, 고1 때, 초등 학교 순으로, 함께 흡연을 한 사람은 친구와 여럿이, 친구와 둘이서, 혼자서 순으로 조사되었다. 담배를 처음 피운 장소는 집에서, 공원 또는 공중 화장실에서, 학교 화장실에서 등의 순으로, 동기는 호기심, 친구 권유, 스트레스 때문의 순으로 조사되어 음주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때부터의 조기 예방 교육과 건전한 교우 관계 지도 맞벌이로 인한 빈 집 등 가정에서의 대응, 흡연에 대한 잘못된 호기심 억제를 위한 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최근의 흡연 경험에 대해서는 103%~21.2% 정도가 전혀 안 피운다고 응답하였으며, 어쩌다 한번이

3.4%~8.2%로 응답하였으며 하루에 여러 번은 2.6%~5.2%로 나타나 상습적인 흡연을 하는 학생도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학년은 본교가 타 여고 보다 6.2% 더 증가, 3학년도 본교가 타 여고보다 7.4%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연에 대한 지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흡연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지속적이고 철저한 예방교육이 절실하다 하겠다.

라. 각종 약물 사용 경험에 대한 분석

진통 소염제가 28.0%~40.9%로 가장 많았으며 본교 2학년은 진통 · 소염제 복용이 5.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3학년도 진통 · 소염제 복용이 3.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피로회복제가 8.3%~11.1%로 나타났고, 정신 · 신경안정제 및 각성제는 복용이 즐거나 낮은 증가율을 보였고, 습관성 마약류의 복용이 본교는 전혀 없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타교 2학년은 진통 · 소염제 복용이 4.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3학년은 피로 회복제 복용이 4.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각성제, 정신 · 신경 안정제의 복용이 줄거나 낮은 증가율을 보여 바람직하나, 타교 3학년의 경우 1명이지만 습관성 마약류의 복용자가 있다는 점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

마. 진통 소염제에 대한 분석

진통 소염제의 종류는 본교와 타 여고 모두 게보린, 펜잘, 타이레놀의 순이었으며 처음 진통 소염제를 복용한 시기는 중학교 때, 초등 학교 때, 고1 때 순으로, 복용한 이유로는 생리통, 두통, 치통, 해열 및 소염으로 조사되어 여학생의 경우 생리통에 의한 복용에 각별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 정신 · 신경 안정제에 대한 분석

정신 · 신경 안정제를 복용해 보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0.7%~3.6%로 나타났으며 복용한 약물의 종류로는 지아제팜, 아티반, 바리움등이 있었고, 복용한 시기는 중학교 초등학교, 고1때 순으로, 복용한 이유로는 우울해지고 괴로워서, 잠이 안와서 등이었으며 복용을 할 때 약사의 지시나 약의 안내대로 복종한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사. 피로 회복제에 대한 분석

피로회복제의 종류는 본교와 타 여고 모두 박카스(49.8~54.0%), 영비천, 컨디션의 순이었으며 처음 피로회복제를 복용한 시기는 초등 학교 때(29.2~32.1%), 중학교 때, 고1 때 순으로, 복용한 이유로는 음료수 대용으로(27.9~32.6%), 신체상의 피곤함, 기분 전환을 위해서 순으로 조사되어 피로 회복제는 초등 학교 때부터 음료수 대용으로 복용하고 있는 바 각별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 각성제에 대한 분석

각성제의 종류는 본교와 타 여고 모두 모두 타이밍(6.9~13.4%), 레크린, 나리트스 루에스팅의 순이었으며 처음 피로 회복제를 복용한 시기는 중학교 때(7.6%~10.0%), 고1 때, 초등학교 때 순으로, 복용한 이유로는 신체상의 피곤함(1.7~5.2%). 정신적 피로감, 기분전환을 위해서 순으로 조사되어 각성제에 대한 지도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습관성 마약류나 환각제에 대한 분석

습관성 마약류나 환각제를 복용해 보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97년의 경우 본드 8명, 마리화나 4명, 몰핀 2명, 기타 2명이었으며, 98년의 경우 본드 6명, 환각제 2명, 기타 1명으로 극히 적은 수의 학생이 복용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개인 면담을 통해 이들을 찾아내지 못하여 구체적인 지도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을 통하여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2. 인지도 분석

가. 약물 남용 예방 교육에 대한 일반적 태도

약물 남용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장 깊게 하게 된 계기로는 본교와 타교 모두다 교과 시간, 게시물, 담임 교사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본교는 다짐 대회가, 타교는 포어 · 포스터 · 글쓰기가 다음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6).

학교에서 약물 오 · 남용 예방 교육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접했느냐에 대한 물음에는 본교생은 1회 이상이 81.7%, 타교생은 38.3%로 응답하였다(표 7).

의약품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느냐에 대한 물음에는 본교생은 의사 · 약사의 처방, TV · 라디오 등 광고를 통해, 부모님의 권유 순으로 타교생은 의사 · 약사의 처방, 기타, TV · 라디오 등 광고를 통한다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나. 술에 대한 태도

학생들은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60.5%~67.1%) 한두 잔 정도는 용인하는 태도를 나타냈으며(64.9%~68.0%),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과반수 미만으로 나타났다.

다. 담배에 대한 태도

학생들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음주보다 높게 인지하고 있으나(83.2%~89.1%) 청소년들의 흡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도 13.2%~18.2%나 나타났다.

라. 약물에 대한 태도

이 조사에서 약물은 일반적인 약물과 금지 약물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약물에 대해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75.1%~75.9%)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한다는 응답도 3.7%~17.5%까지 나타나 보다 철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V. 제 언

청소년들을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신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교사의 관심과 지도, 가족의 올바른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접하지 못하도록 솔선 수범하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

첫째. 학교 보건법에 학생들에게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함과 아울러 지도·점검이 있어야 한다.

둘째. 초·중등 교육 과정 중 관련 교과에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지도 내용이 수록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각종 교사 연수시(자격, 일반, 신규 임용시)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대한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넷째. 법무부, 교육부, 문화 관광부, 보건 복지부 등 정부 각 부처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있어야 한다.

2. 학교에서의 대책

첫째. 학교 교육 계획서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토록 해야 한다.

둘째. 담임 교사가 의욕을 갖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셋째. 자체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

넷째. 성적이 낮은 학생들과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다양한 방과 후 교육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학교 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가정에서의 대책

첫째.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고민과 갈등을 파악하고 탈선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둘째. 문제 학생의 발생 요인은 문제 가정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만 한다.

셋째. 늦은 귀가, 보상 심리로 주어지는 과다한 용돈 사용, 소지품 등에 관심을 갖고 예방토록 해야 한다.

4. 사회적 대책

첫째. 대중 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를 통하여 약물 남용 폐해를 정기적·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 유해 업소는 청소년들이 약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를 지키도록 솔선 수범토록 하고,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동일 업종에 대한 영업을 규제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 보다 많은 공간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정영복, 중등학교 학생의 약물 오·남용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1989.

구충회, 약물 오·남용 해독 자료 개발 지도가 청소년 심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기 안산교육청, 1989.

문화체육부,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 지도서, 1993.

김소야자 외,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 대책, 1994.

인천광역시교육청, 생활지도 방안 모색을 위한 인천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의 실태 조사 연구, 1995.

이광필, 토의 학습 자료 구안적용을 통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 지도,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여자고등학교, 1996.

최선화, 청소년과 약물 남용, 홍익재, 1996.

손경애, 청소년 약물 남용의 실태와 대책,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92.

마약 없는 밝은 사회 (1998. 봄), "약물 남용의 제원인 탐

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윤로, 청소년 백서, 문화체육부 청소년 정책실, 1997.
주왕기, 필로폰 이야기,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6.
이경호,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 대책의 현황과 문제점", 통권 제20호., 사단 법인 한국학교본건협회, 1996.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중등학교 생활지도교사 교육실재: 식품의약품안정청 마약관리과, 1998. 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시내 중·고등학생 대상-, 1998. 8.
유창종, "마약류 사범의 실태와 대책"(제5회 형사 정책 세미나), 법무 연수원, 1989.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약물 오·남용 예방 지도, p.56, 1998.
김홍규, 신생활 지도론(개정판), 형설 출판사, pp. 270-271, 1987.
민병근 외, 비행 청소년의 약물 사용 빈도 및 약물 사용에 관한 사회 정신의학적 연구, 정신의학, p.234, 1986.
이정균, 정신 의학(개정판), 일조각, pp. 370-387, 1988.
Dan, J. Lettieri. ed. predicting Adolescent Drug Abuse, NIDA, p.304.
Polk, K. and Schafer, W., School and Delinquency, Engle 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p. 200, 1972.